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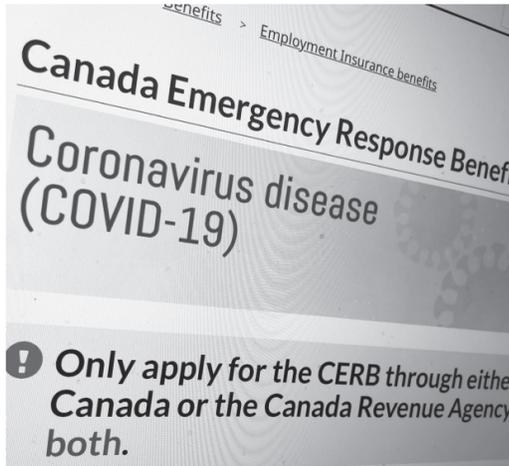
# CERB는 과세대상 2천 불당 세금 252불 준비해야

연방정부로부터 긴급지원금(CERB)을 받는 실직자들이 내년에 세금폭탄을 피하려면 지금부터라도 계획을 세워야 한다.

CERB는 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수혜자들은 내년에 반드시 세금을 내야 한다.

연방하원의 예산담당자는 CERB 수혜액 2천 달러당 평균 252달러 정도의 세금을 예상하고 말했다.

월 2천 달러씩 최장 6개월간 CERB를 받았다고 가정하면 총 1,512달러가 세금이다.



실직 또는 휴직으로 정부 지원금을 받은 사람에게 이 정도 금액은 큰 부담이기 때문에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한 방법은 CERB를 받으면 지금부터라도 세금을 떼어 적립하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 캐나다 외무장관

### '중국은행' 모기지 서둘러 갚아

언론의 눈총이 꽤나 따가웠던 때문일까.

'중국은행(Bank of China)'으로부터 모기지 대출을 받아 구설수에 올랐던 연방외무장관이 23일 "남은 대출금을 조기상환했다"고 밝혔다.

프랑스와 필립-삼페인 외무장관은 영국 런던에서 건설회사 간부로 근무하던 2009-13년 2개의 콘도를 구입하면서 총 170만 달러의 모기지를 대출받았다. 그는 대출금을 상환하던 중 외무장관이 됐다.



그러나 명왕저우 사건으로 캐나다와 중국의 외교관계가 급속도로 악화하자 "다른 사람도 아닌 외무장관이 중국은행에 모기지를 가진 것은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지적을 받았다. 장관은 정치권에서 "중국은행과의 거래 중단하라"는 압박이 거세지자 잔액 120만 달러를 모두 갚았다. 이 지금은 캐나다 은행에서 재융자(refinance)를 받았다고 그는 하원에서 밝혔다.

## 폭행 당한 원주민 추장에 대한 기소 철회 검찰 "증거가 혐의 뒷받침 못해"

체포 과정에서 경찰에 의해 무자비한 폭행을 당한 앨버타주의 원주민 추장에 대한 기소를 앨버타 검찰이 철회했다.

검찰측은 24일 "각종 증언과 증거자료를 분석한 결과 앨런 애담 아다바스카 치피웨이언 부족장이 받고 있는 체포 불응과 경관 폭행 혐의에 대한 기소를 철회한다"고 밝혔다.

에담 부족장은 지난 3월 10일 새벽 2시께 포트 맥머리카지노 인근에서 차량 번호판이 만료됐다는 이유로 연방경찰이 자신의 부인에게 강압적인 행동을 취했으며 이에 대해 경관과 마찰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자신은 체포되고 무자비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최근 차량 대시캠(블랙박스)영상에서 무방비 상태의 추장이 폭행당하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그의 주장에 힘이 실렸다.

에담 부족장 변호인은 "억울한 누명을 벗었다"며 "만료된 번호판으로 사건이 이같이 커지게 된 배경에는 경찰의 탓이 크다"고 밝혔다.

## 캐나다 은행 총재

### "경제 회복 험난할 것"



캐나다 중앙은행 총재가 코로나 대유행으로 인한 장기적 경제 침체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다.

티프 맥클렘 총재는 사람들이 다시 직장으로 돌아가고 각 가정에서 일부 활동을 재개하기 때문에 올 3/4분기에 약간의 경제 성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캐나다인들은 앞으로 몇 달간 있을 단기적 경기 회복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맥클렘 총재는 월요일 연

설에서 "산업 전반에 걸친 불균형한 지역 경제재개와 불확실한 소비심리, 실업률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수요와 공급에 지속적인 피해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계속되는 사회적 거리 두기 규정 때문에 많은 서비스 제공이 여전히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코로나바이러스가 우리가 경제에 미친 영향이 매우 충격적이라고 말하며 "모든 경제 분야가 거의 문을 닫았고 4월까지 3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다. 심지어 더 많은 사람들의 근무시간이 축소되었다. 비록 경제

가 2단계까지 재개되었지만 실직자들 모두가 직업을 되찾는 것은 힘들 것이다.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코로나 타격에 대한 중앙은행의 대응으로 이자율이 0.25%로 하락한 가운데 이자율이 앞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은행은 연간 2%의 물가 상승률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지난 주 캐나다 통계청은 5월 물가 상승률이 -0.4%, 4월 -0.2%를 기록한 이후 2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 코리아 알버타 저널

## 알버타저널 발행인 안길웅

### \* 매주 금요일 발행

연락처 : 전화 (403) 616-7755

Email: 회사대표 abjournal.ca@gmail.com

또는 albertajournal@gmail.com

[www.abjournal.ca](http://www.abjournal.ca)

## 주인 직접 판매

Laundromat. Dry cleaning. Depot. For sale

Good lease. Great potential. Original investment over 200k.

Asking \$ 149 900 / 2 years old

For info call Bob@ 403 990 7235

# 고육의 맛을 같다

김치가 맛있으면 밥맛이 살맛난다. 맛난 김치와 정갈한 반찬, 반조리식품이 준비돼 있습니다.



열무김치 3.6kg	부추김치	우영조림	부대찌개
배추김치 3.6kg	오이소박이	연근조림	감자탕
백김치 3.6kg	깍두기	마늘쫀두침	오삼불고기
총각김치 3.6kg	겉저리	무우말랭이	LA 갈비
나박김치 3.6kg	고추피클	쇠장조림	돼지갈비
동치미 3.6kg	갯잎절임	계란장조림	소불고기
맞춤김치 3.6kg	고추절임	오이지무침	떡볶이
파김치	호두멸치	김치해물전	

가족들이 하루도 빠짐없이 찾는 김치! 직접 담그기엔 염두가 나지 않고 마트에서 사먹긴 부담스러우시나요? Red House에서 주문하세요. 진짜 엄마 손맛으로 집에서 정성스레 담그어 판매합니다.

모든 음식은 맛있습니다. 특이사항은 전화주세요.

Red House | 403.402.2774

# Math Tutor - Alex

## 수학 · 물리 · 화학 개인 레슨

Math (10-20-30), Physics (20-30), Chemistry (20-30)

· 대상: 고등학생/영재학교 (GATE) 학생 환영

· 수업방법: Zoom을 통한 온라인 레슨

· 교사 경력:

-PhD in Electrical Engineering, U of C

-고등학교 수학 · 물리교사 교직원 자격증

-고등학생, 대학생 개인레슨 다년경험



전화: (영어) 403-282-9220 (한국어) 403-264-4426

이메일: bageorge@topnotchcanada.ca